

알기 쉬운 국민연금

투자 잘하는 국민연금, 내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

국민연금 2025년 12월(잠정치 기준)

기금 규모 1473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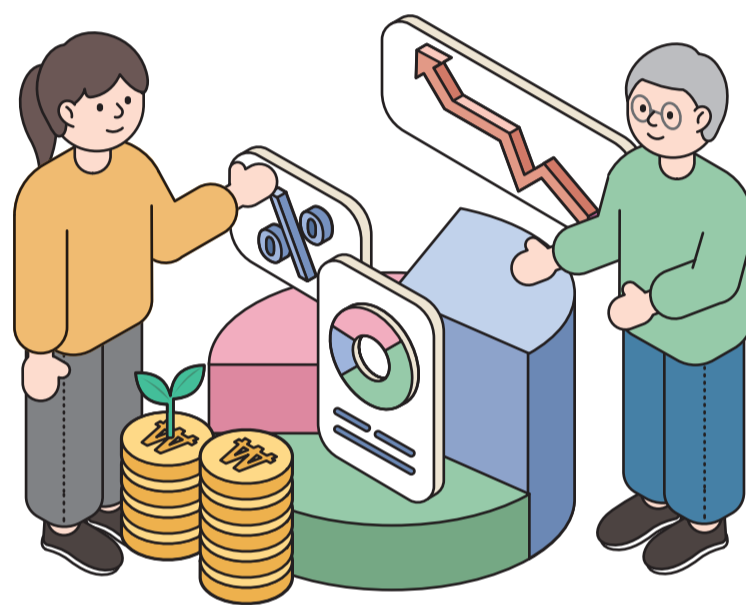
기금운용 수익률 20%로 역대 최대

국민연금¹⁾은 올해 12월 기준,
기금운용 수익률²⁾ **약 20%**, 기금³⁾ 규모 **약 1473조원**으로
역대 최대 규모의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※ 대체투자 공정가치 평가 미반영 등 잠정치 기준

이는 2024년 말 국민연금 기금 1212조9천억원과 비교해
약 260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.

올해 증가한 약 260조원은 2024년 연금지출(44조원)의
약 6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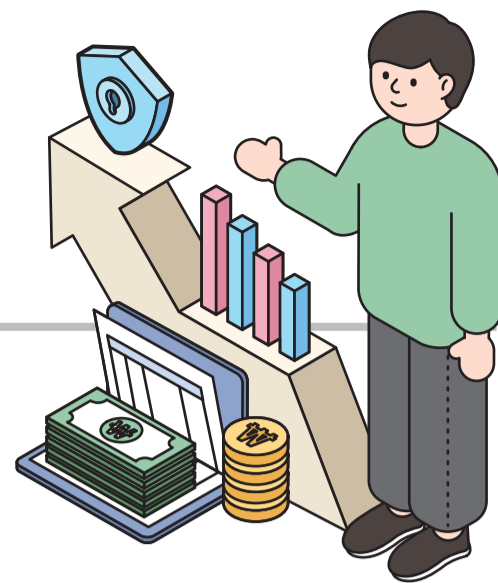


| 국민연금 기금 규모 |



1) 국민연금: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라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 연금제도
 2) 수익률: 국민연금기금이 주식·채권·대체투자 등에 투자해 얻는 운용 성과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
 3) 기금: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그 운용 수익을 모아 적립한 자금으로, 향후 연금 지급의 재원이 됨

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은 내 노후와 어떻게 연결될까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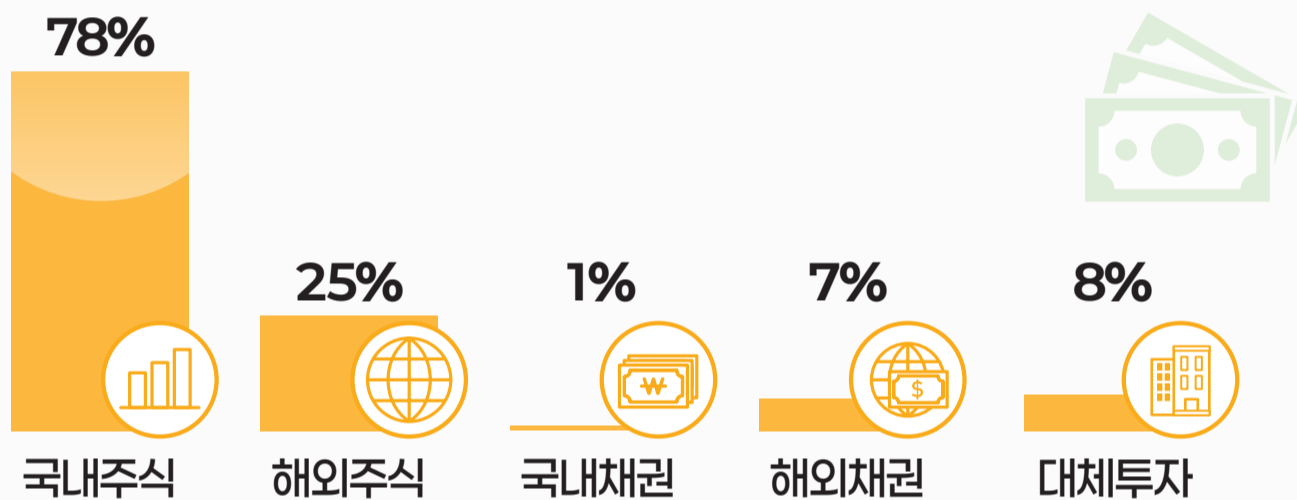
국민연금이 기금을 운용하는 이유는
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함입니다.

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한곳에 쌓아두지 않고,
국내·외 주식, 채권, 대체투자 등
여러 자산에 나누어 장기적으로 투자하여,
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.



| 자산군별 수익률 |

(2025년 12월 잠정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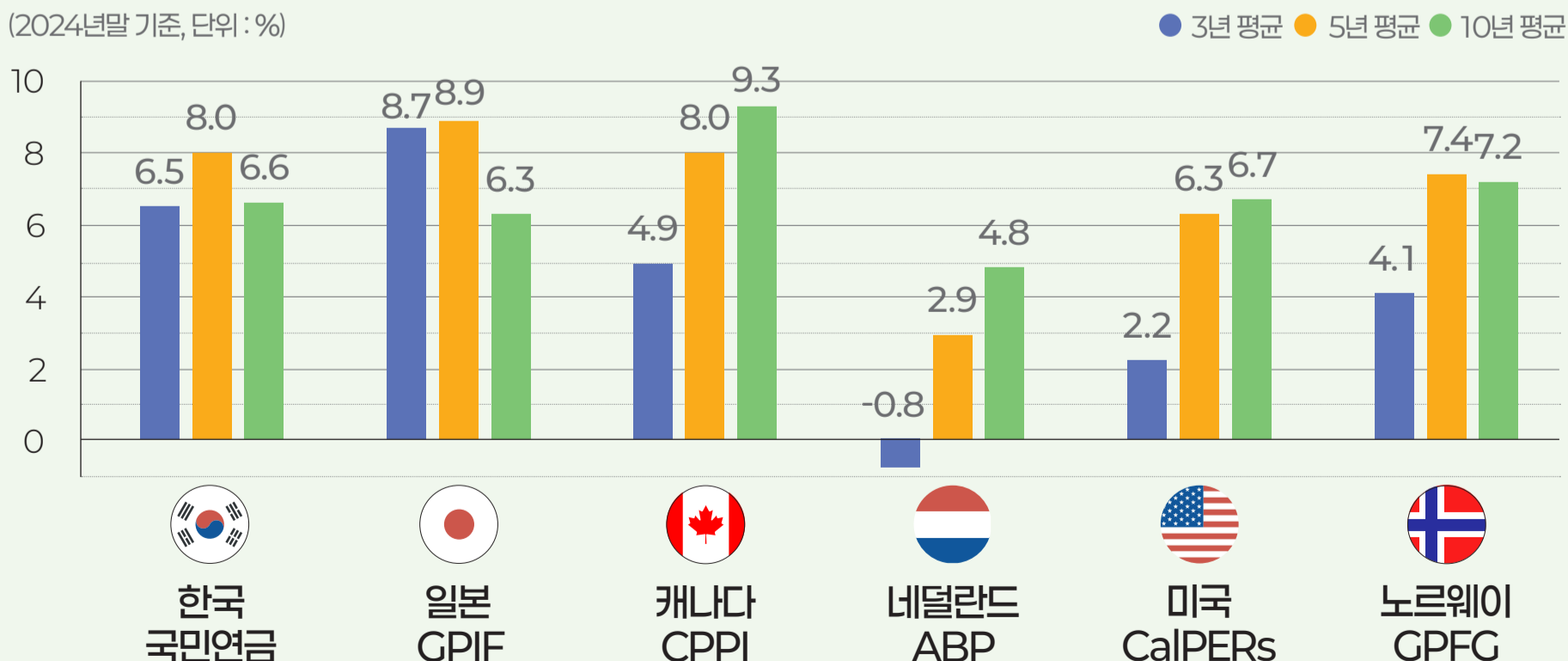


※ 대체투자 공정가치 평가가 반영된 최종수익률은 2026년 2월 발표 예정

해외 여러 기금과 비교해서 보더라도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.

최근 3·5·10년 수익률 국제 비교 | 주요 연기금 수익률 현황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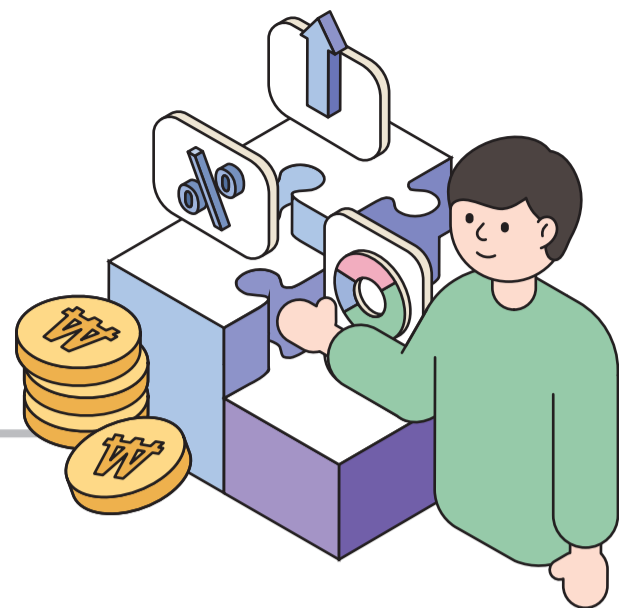
(2024년말 기준, 단위: %)



※ 주요 연기금의 상이한 회계연도 기준을 국민연금 기준(1.1.~12.31.)으로 일치

국민연금 쉽고 정확하게 알기

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, 무엇이 바뀔까?



1 보험료율 (2025년) 9% → (2026년) 9.5%

보험료율¹⁾이란, 나의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으로 **납부하는 돈의 비율**을 말합니다.

지금까지는 월급의 9%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냈다면, **2026년** 부터는 **9.5%로 0.5%p 조정**됩니다.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+0.5%p씩 2033년까지 13%로 조정될 예정입니다.

사업장(직장)가입자의 경우 **근로자와 사업장이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**하고
지역가입자의 경우 **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납부**합니다.

| 사업장(직장)가입자²⁾ |

보험료 =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





| 지역가입자³⁾ |

보험료 =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



예를 들어, 2025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(A값⁴⁾) 309만원을 기준으로 보면,

<p>· 사업장(직장)가입자는 2025년보다 월 7700원</p> 	<p>· 지역가입자는 2025년보다 월 1만5400원</p> 
<p>→ 더 납부하게 됩니다. ←</p>	

정부는 보험료율 조정에 따른 **지역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으로 보다 확대**합니다.

1) 보험료율: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해서 실제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
 2) 사업장(직장)가입자: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(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장이 절반씩 납부)
 3) 지역가입자: 자영업자·프리랜서 등 사업장가입자 외 가입자(본인이 보험료 전액 납부)
 4) A값: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, 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됨(2025년 309만원)

현재는 실업·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가 다시 납부를 시작한 지역가입자에 한해, 보험료의 50%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**2026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**이 됩니다.
(이미 보험료를 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 유지)

여기서 잠깐! 보험료가 오르면 나만 손해 아닌가요?

보험료가 늘어나면 국민연금 기금으로 들어오는 재원이 커지고, 이를 바탕으로 연금을 더 오래, 더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.

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집니다. 정부는 자산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 운용 인력을 확충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.



② 소득대체율 41.5% → 43%

소득대체율¹⁾이란 **본인의 평균소득 중 몇 %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**입니다. 이 비율이 오른다는 것은, **내가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뜻**입니다.

예를 들어, 월 평균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2026년부터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,

- 기존 제도 하(^{2026년}41.0%→^{2027년}40.5%→^{2028년~}40.0%)에선, 월 123만7천원을 받을 수 있지만
- 소득대체율이 43%로 오르면 **132만9천원**으로,

월 9만2천원을 더 받게 됩니다.

기존 *



월 123만7천원



+9만2천원

개편 *



월 132만9천원

*** 2026년부터 40년 납부 시**

1) 소득대체율: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 수준을 나타내는 비율

3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'크레딧 제도' 확대

정부는 출산이나 군 복무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'크레딧 제도'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
출산 크레딧¹⁾ 확대

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했지만, **2026년** 부터는 **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이 인정**됩니다.

- 첫째: 12개월
- 둘째: 12개월
- 셋째부터: 18개월씩(최대 50개월 상한 폐지)

예를 들어 3자녀 가정의 경우, 아이를 출산·양육하는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더라도 총 42개월의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.



군 복무 크레딧²⁾ 확대

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**2026년** 부터는 **12개월로 확대**됩니다. 정부는 향후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.



1) 출산 크레딧: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

2) 군 복무 크레딧: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

④ 일하는 어르신의 노령연금¹⁾ 감액제도²⁾ 개선

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하는 어르신들이 많지만, 현재는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.



그러나 **2026년 6월 17일부터**는

감액 대상자가 가장 많은 **소득구간**(월 소득 309만원 초과 ~ 509만원 미만, 2025년 기준)은 **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개선**합니다.

이를 통해 일하는 **어르신의 소득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**으로 기대합니다.

1) 노령연금: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기본적인 연금 급여

2) 감액제도: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

|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비교 |

(월 소득 기준)

* A값: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(2025년 기준 309만원)

현행		→	개정
구간	A값 초과소득월액		월감액 금액
1	100만원 미만	5만원 미만	감액 X
2	100만 ~ 200만원 미만	5만 ~ 15만원 미만	기존과 동일
3	200만 ~ 300만원 미만	15만 ~ 30만원 미만	
4	300만 ~ 400만원 미만	30만 ~ 50만원 미만	
5	400만원 이상	50만원 이상	

- A값(평균소득월액)은 매년 변동
- 감액은 연금액의 최대 50% 한도 내에서 적용
- 감액 적용 기간은 지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간
-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, 2025년 이후 발생한 근로·사업소득부터 적용

여기서 잠깐!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무엇이 다를까요?

보통 ‘국민연금을 받는다’고 말하지만, 엄밀히 보면 국민연금은 제도의 이름이고, 노령연금은 그 제도 안에서 노후에 받는 연금 급여를 뜻합니다.

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, 유족연금처럼 여러 종류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이 나이가 들어 받게 되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.

즉, 국민연금은 큰 틀의 제도이고, 노령연금은 그 안에 포함된 대표적인 연금입니다.





한눈에 요약

2026년 국민연금제도, 이렇게 달라집니다

보험료를 조정

2025년

9%



2026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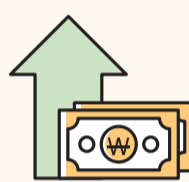
9.5%



소득대체율 인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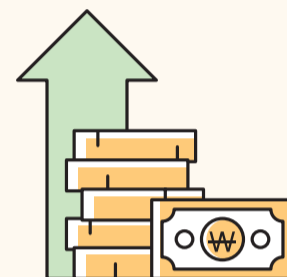
2025년

41.5%



2026년

43%



출산 크레딧 확대

2025년

둘째부터 12개월



2026년

첫째부터 12개월



군 복무 크레딧 확대

2025년

최대 6개월



2026년

최대 12개월



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

2025년

납부 재개자



(19만3천명)

2026년

월 소득 80만원 미만



(73만6천명)

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

2025년

월 소득 309만원 초과 시 감액



2026년

월 소득 509만원 이상 시 감액



* 2025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(A값) 기준